희귀 6세기 고구려 불상 중국서 발견

문명대 미술사연구소장, 교포 소장 불상 감정해 확인

중국에서 6세기 고구려 시대 불상이 발견돼 불교 · 미술사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중국 교포 사업가가 소장하고 있는 불상에 대해 감정 의뢰를 받아 감정을 진행한 결과 고구려계 금동불입상 진품임을 확인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고구려계 불상은 굉장히 희귀하다. 현재 알려진 고구려 불상은 대부분 일제의 조사 발굴과 수집에 의한 것들이다. 북한에서도 고구려 불상이 발견된 예는 1~2차례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국보 제119호 연가7년명 금동불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제72호 계미명금동불입상(간송미술관 소장)을 비롯해 연천 소루 발굴서 출토된 소금동불상 등이 고구려계 불상으로 확인됐다.

문 소장은 발견 경위와 분석을 담은 소논문을 통해 이번에 발굴된 불상을 '고구려 공형육계식(球形肉 式) 금동불입상'이라고 명명하고, 조성 연도가 연가7년명 불상과 계미명 불상의 사이인 6세기로 추정했다. 시기적으로만 보면 새로 발견된 불상은 현존하는 고구려 불상 중 두 번째로 오래된 불상이 된다.

발견 및 경위에 대해 문 소장은 "지난해 5월 중국 교포 사업가가 고구려

두 번째 오래된 불상 추정
연가7년-계미년 사이 조성
불상 기법 이행과정 보여줘
미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불상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와 중국 현지서 2차례 불상을 조사했다"면서 "불상 구입 직후인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연가7년명금동불입상과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고구려계 불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새로 발견된 불상은 높이 18.5㎝, 너비 8.6㎝로, 불신(佛身)부터 광배(光背) · 대좌(臺座)를 두루 갖췄다. 불두(佛頭)에 공처럼 생긴 둥근 육계가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육계는 삼국시대 불상 중 고구려 불상에서 잘 나타난다.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감정한 '공형육계식 금동불입상'의 모습. 6세기 중엽 조성된 고구려 불상임이 확인됐다.

문 소장은 "새로 발견된 불상은 공형육계나 수인 등에서 계미명불입상과 유사점이 발견되지만, 장식성이 풍부한 '일광삼존불'인 계미명불입상보다는 좀 더 질박한 '일광독존'의 연가7년명불입상에 보다 가깝다"면서 조성 연대를 525~550년 전후로 봤다.

이 같은 고구려계 불상은 고구려 불상 조성 양식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일광독존식 연가7년명 불상서 일광삼존식 계미명 불상으로의 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소장은 "발견된 공형육계식 금동불입상은 1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은 고구려 불상의 하나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연가7년명 · 계미명 불상으로 이행되는 불상의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불상이다. 향후 불상은 고구려 불상 연구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화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소장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강좌 미술사〉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화 '비구니' 스틸컷. 사진제공=임권택영화박물관

영화 '비구니' 33년 만에 세상 밖으로

4월 28일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서 월드프리미어

1984년 제작이 중단된 임권택 감독의 영화 '비구니'가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부분 복원판이 첫 공개됐다.

영화 '비구니'는 출가한 여인이 번뇌하는 과정과 구도의 길을 담은 작품으로 감독 임권택, 촬영 정일성, 대본 송길한, 주연 김지미 등 당대 최고 영화인들이 참여해 제작 당시 큰 화제를 끌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여주인공인 비구니의 행실을 문제 삼아 강력히 반발해 제작이 중단된 바 있다. 이유는 여주인공인 스님이 전쟁통에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트럭운전사와 움막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불교를 모독했단 것.

이번 부분 복원판은 당시 제작 중단 사태 후 33년 만에 첫 공개되는 것으로, 관계자 증언을 담은 다큐멘터리 22분을 포함 총 65분 분량이다. 4월 28일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서 진행된 송길한 작가 특별전 '작가 송길한, 영화의 영혼을 쓰다'에서 상영됐다.

이날 배우 김지미 씨는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전국 사찰을 돌고 관찰하며 비구니 캐릭터를 완성했다"면서 "이렇게 전주에서 다시 보니 참으로 기쁘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송길한 작가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선 앞 부처님오신날, 佛心잡기 눈길

사상 최초 대선 앞 법요식… 법회 참여·메시지 발표도

문재인 후보 등 조계사 집결
유승민 후보는 동화사 찾아
후보 배우자들 봉은사 참석
조계사 앞 대선홍보도 치열

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직전 열린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는 대선후보들이 모두 참여해 불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부인 오선혜 여사 등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 시작 전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을 예방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구 동화사 법요식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각 후보들의 법요식 참여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다른 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측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메시지를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2561년 전 이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 같이 존엄함을 일깨워 주셨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국민의 여망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수도자의 마음으로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준표 후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자비가 온누리에 펼쳐지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원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 속에 있을 수 없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베푸셨던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곳 조계사에 오는 길에 광화문을 거쳤다. 그곳 지상에는 3년이 흐른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유가족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그곳 공중에는 여섯 명의 노동자들이 물과 소금으로 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동료들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헤아려 본다"며 "우리 국민 모두를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로 대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은 5월 3일 조계사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대거 참석했다. 왼쪽 사진은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각 당 후보들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조계사 앞에서 한 사람이 투표 독려운동 피켓을 든 모습이다.

동화사 법요식에서 유승민 후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 중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 정치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 "어려서 어머니 손에 끌려 동화사에 오고, 공부하기 싫어 석 달간 부도암서 살기도 했다"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배우자 이순삼 여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배우자 김미경 교수도 3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각 대선후보들의 불심잡기에 힘을 보탰다.

한편, 법요식이 진행된 조계사 앞 대로에서는 각 후보진영의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홍보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또 투표를 독려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돋보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때 아닌 종교편향 논란

세종청사 · 장성군 봉축등 설치 불허로 불교계 공분

문화재 인식 부재 비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봉축점등탑과 거리연등 설치를 불허하며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다.

세종시불교신행단체연합회(사무총장 김동협)는 4월 29일 성명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종지역 불교계가 나서 추진한 세종청사 앞 봉축 점등탑 설치를 불허했다"며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연등회는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 위상이 높다. 성탄 트리는 '문화적 구조물'이고 봉축 장엄물은 '종교적 시설'이라는 정부부처의 종교 편향성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2016년 국비를 들여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정부세종청사는 연합회의 요청에 대해 "국유지에 종교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봉축 점등탑 설치를 불허한 바 있다. 세종청사 측은 "트리는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적 개념의 구조물"이라고 답해 불교계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5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예산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등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봉축탑과 장엄물이 전통문화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종교편향은 아니다. 각 종교계 요청 시 건립공간 제공은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성군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 교계의 연등설치 제안을 불허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백양사 등과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며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산 것"이라며 "연등행렬이나 행사는 가능하나 불교적 이미지가 강한 연등을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을 드렸고, 군청보다 장성역 광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추천했다"고 답했다. 백양사 측도 "현재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제1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

주제 : 대행선이란 무엇인가?

초대의 글

한마음선원에 주석하면서 일평생을 오직 광도중생의 길을 걸어온 대행 선사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원이 발족된 지 10개월 만에 개최하는 학술회의라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기에 조촐하게나마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행 선사가 걸은 광대무변한 발자취를 한꺼번에 다 표현해 낼 수는 없기에, 차후 다시 가다듬고 보충하면서 계속 선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할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첫발을 내디딘 대행선의 연구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부디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원장 이평래 합장

대회식순

1부 개회식
10:00~11:00 [사회: 혜선스님]
· 개회사
· 삼귀의례
· 뜻으로 푼 반야심경
· 인사말씀
· 내빈소개
· 환영사
· 축사
· 사홍서원
· 공지사항
11:00~11:20
· 차와 담소

2부 학술발표
11:20~12:00 기조발표: 이평래 [본원 원장]
논제: 한마음을 요체로 한 대행선에 관하여
12:00~13:30 점심공양
[사회: 윤창화(민족사대표)]
13:30~14:10 발표: 김광식(동국대)
논제: 대행 선사의 행적에 나타난 혁신불교의 성격
논평: 김경집(진각대)
14:10~14:50 발표: 김호귀(동국대)
논제: 대행선 형성의 사상적 배경
-본래성불사상과 관련하여-
논평: 이덕진(창원문성대)
14:50~15:20 차와 담소
[사회: 오지연(천태불교문화연구원)]
15:20~16:00 발표: 박소령(동국대)
논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대한 교리적 근거 고찰
논평: 권탄준(금강대)
16:00~16:40 발표: 차차석(서울동방문화대학원대)
논제: 대행 선사의 오공의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과 연원 고찰
논평: 남수영(동국대)
16:40~17:00 차와 담소
17:00~18:00 토론광장 [좌장: 김용표(동국대)]
18:00~18:10 총평 / 마무리 인사 [본원 원장]
18:10~19:00 저녁공양

일 시 : 2017년 5월 19일 (금) 09:30 ~ 18:10
장 소 : 한마음선원 3층 강당
문 의 :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 031.470.3277 F. 031.470.3116